



Series 00-09

Occasional Paper Series

Knowledge 시대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Attracting FDI in the Knowledge Era

◆

Andrew Fraser

2000. 11. 30

필자 약력

Andrew Fraser

영국 투자청장(1994~현재)

영국 Sussex大卒, Harvard School 및 UCLA에서 수학

Saatchi & Saatchi (런던) 부사장 및 Dentsu社의 유럽 핵심 홍보연계망인 cdp europe의 관리이사 등 역임

Knowledge 시대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Andrew Fraser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은 본인의 큰 영광이며, 아울러 늘 그렇듯 한국의 회복 속도와 규모를 지켜보고 1997년 아시아 전역에 확산되었던 상황에 여러분이 어떻게 조정해 나가는지를 들어보는 것 또한 본인의 큰 특권이다.

우리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이 흡사함에 놀랐다. 흥미롭게도 영국 투자청(Invest UK)은 영국의 금융 위기 이듬해 1970년대의 영국 경제를 직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시장규제와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춘 당시의 투자의제는 우리가 그 이후 진행해 온 모든 작업에 건설한 토대가 되었다.

본인은 영국 투자청 자체에 대해 몇 가지 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 기관은 영국 전체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촉진시키는 유일한 정부기관이다. 우리의 목표는 간단하다. 영국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유지시켜 가치를 부가하는 것이다. 많은 훌륭한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영국에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영국 사회는 실제 기업들이 외국인 소유 회사인지를 못 느낄 정도다. Siemens社는 1840년부터 영국에서 사업을 해 왔으며, 북미 이외에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Ford社가 Dagenham 지역에 있고, General Motors社의 최초의 자동차인 'Vauxhall'이 1920년대 초 Luton 지역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영국 경제에서 1세기 이상동안 기존 외국인투자의 토대가 굳어져온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그 투자 보유력과 부가가치는 엄청나게 세계화된 경쟁환경에서 아주 높은 국가적 우위를 차지하게 하는 것이다.

기관에 대한 몇 가지 사항으로서, 영국 투자청은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와 대외 및 英聯邦협력실(Foreign and Commonwealth International Office)의 공동 산하기관으로, 본인은 새로운 기관인 영국 국제통상부(British Trade International)를 통하여 장관들에게 보고한다. 영국 국제통상부 내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영국 통상협력청(Trade Partner UK)이고, 다른 하나가 영국 투자청(Invest UK)이다. 영국 통상협력청은 영국 밖에서 영국 회사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영국 투자청은 영국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관리하며 부가가치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본인은 이러한 것이 올바른 구조라고 생각한다. 영국 국제통상부는 자체적인 의사결정기구에 의해 운영되는데, 이 기구는 소규모 사업가뿐만 아니라 많은 중진들이 일부 공무원 및 장관들과 자리를 같이 하는 민관협력기구이다. 이 기구는 전세계적인 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우리에게조차도 새로운 개발이며 독특한 실험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시장에서 영국측 파트너들과 함께 활동할 우리 팀들에게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영국은 현재 국가기구인 영국 투자청 외에 다른 기관이 있는데, 전국 각 단위지역은 독자적인 자체 개발기관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1990년 경 본인은 Nestle社의

* 이 글은 2000년 9월 14일 개최된 특별강연회의 강연내용을 번역·정리한 것임.

회장과 플랫폼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다. 거기서 Nestle社의 회장은 “우리 회사는 완전히 세계적이며, 사업의 99퍼센트가 국내시장(스위스)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의 경우, 우리가 세계화되면 될 수록 모든 매출이 지역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 변함없이 기억합니다” 라고 말했다.

본인은 그것이 좋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투자결정은 아주 지역적으로 이루어진다. 영국의 개발관청은 기획, 공급업자와의 관계, 소비자와의 관계, 인프라 문제, 훈련 및 개발 문제 등에 대해 투자자들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기업들의 요구를 예측하고 기술적 토대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업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다. 본인은 조직력 깊숙이 있는 중앙과 지역 행정기관간의 관계가 유럽국가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확신한다. 미국은 우리와 같은 연방기구가 없고, 단순히 州 차원에서 운영된다.

우리는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모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할 계획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고객과 개발관청의 제3자가 온라인 상에서 통신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래서 세계 전역에서 제약 없이 운영되는 웹(web) 투자서비스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게 것이다. 우리는 John Rutherford가 이끄는 지역사무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일본 외의 아시아지역 팀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자체 웹사이트(www.investukasia.org)를 개발하여 아시아지역의 투자자들을 위한 ‘원스톱 샵(one-stop shop)’을 운영하고 있다.

본인은 세계화로 인해 생겨나는 국가적 의미에 대해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은 근본적인 점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과 매우 관련이 있다. 세계 각지에서 자본, 기술 및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회의 징표라는 것이 본인의 입장이다. 세계경제에서 나타난 모든 증거는 독자적 행보를 시도하는 것은 거의 성공하기 어려우며 국가적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크게 개방된 국제경제(역사적으로 영국 GDP의 40%가 무역과 관계되어 왔다)로서 우리의 경험은 외국인 투자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외국인 투자를 영국의 실패척도가 아닌 성공척도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클린턴 행정부의 Robert Reich 노동장관의 다음 인용은 이 점을 보다 명백히 하고 있다.

“모든 나라의 기업들이 세계화된 웹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적 부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문제는 국민이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우냐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경제에 보다 많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자신의 잠재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본인은 우리가 더 이상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국가의 기업들이 세계화된 웹으로 전환하여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비즈니스와 소비자, 비즈니스와 정부, 비즈니스 자체의 본성과 비즈니스 소유권과의 관계는 기업들과 그 나라의 역사적 기초와의 관계를 급격하게 변형시키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기업의 국적 문제는 종말에 다가왔다고 본인은 전적으로 믿고있다. 만약 우리가 십 년 전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면, 프랑스 정부가 Nissan의 가장 큰 단독 주주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을 것이다. 미국의 경제국가주의와 군용 지프의 상징인 Chrysler가 독일 기술의 상징인 Mercedes-

Benz와 일본의 대기업 Mitsubishi와 같은 회사라고 하였다면 놀랐을 것이다. 그것이 모두 하나의 회사이고 누가 그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지 본인은 알지 못하며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지도 않다. 문제는 그 회사가 기능을 수행할 위치는 어디이며, 어느 나라가 그 사업에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Daimler-Chrysler-Mitsubishi 그룹이 부가가치 개발과 그룹의 모든 Formula One(경주용 자동차) 사업을 위해 영국으로 와야만 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최첨단의 세계적 차원의 자동차 공학이 있는 곳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이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하며 Daimler-Chrysler-Mclaren 자동차가 영국 제품임에 커다란 자부심을 가진다. 그것은 누가 부가가치를 내느냐 하는 문제이지, 누가 무엇을 소유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세계화된 기업과 웹들은 아주 뚜렷하게 가속화되고 있다. 단순하게 본다면, 세계화 현상은 연간 약 16%에 달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함께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세계 무역은 5% 조금 넘게, 세계 GDP는 2% 남짓 성장하고 있다. 유엔이 현재 계속 보고하는 바와 같이, 세계 상거래의 주요 추진체는 투자이다. 모든 세계무역의 1/3이 기업간 교역이며, 현재 40,000개 이하의 기업들이 전체 세계무역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본인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현상에 반응하고 이러한 변화의 규모를 수용하는데 진정으로 개방되어 있는 사회의 능력은 향후 수년간 성공의 결정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수치들을 다른 방식으로 보면, 지난 20년 동안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세계 주식은 10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모든 지표들은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식지수는 차트에서 현재 완만한 곡선보다는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고, 또 가속되고 있는 중이다. 본인은 이와 같이 불균형한 주식 지분을 유도하는 사회가 성공할 것이며, 본인이 전에 들은 말처럼 “우리 대다수가 항상 우리들 중 어느 누구보다도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성장 추진체의 대부분은 합병과 인수이며, 한국으로 영국의 투자가 유입되는 현상은 매우 흥미롭다. 투자의 대부분은 합작을 기초로 이루어지는데 삼성과 함께 사업을 하는 Tesco와, LG텔레콤과 함께 사업을 하는 BT와 같은 기업들이 있다. 이러한 세계환경 속에서 세계적인 도전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전문성을 지역적·기술적으로 연계하는 협력관계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 국가와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홀로 서기는 훨씬 더 힘들어질 것이며, 인수·합병을 통한 성장이 계속될 것이다. 영국은 이 문제를 매우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현재 런던 증권거래소(LSE)의 소유권에 분쟁이 붙었지만 아마도 독일 증권거래소와 연계될 것이라는 사실에 아무런 공식 이의제기가 없다. 사실, 런던 증권거래소에 대한 최종입찰자는 스위스 회사이며 그것에 대해 우리는 전적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스웨덴 주식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스웨덴 최대의 회사인 Ericsson이 런던에 본부를 둔다는 사실에 우리는 아주 안도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 국제기능이 이동되어 왔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역사의 기원인 그들의 나라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분리되고 있느냐에 대한 척도가 된다.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미국은 국내투자 및 해외투자에 있어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들이 합리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경제가 건설하다는 표시라고 생각한다. 영국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이며 국내투자 유치 및 해외투자 촉진 양쪽 모두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었다. 영국 정부는 해외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장해 준

다. 이점에서 독일과 프랑스보다는 훨씬 앞서 있는데 독일은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간에 상당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흥미롭게도 일본의 수치는 많은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여겨진다. 일본 국내에 대한 투자유입은 거의 없다. 일본 기업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본 내에서의 지적 자본 토대의 측면에서 홀로 서기를 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 대한 일본의 상대적 경제성과를 생각해 본다면,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홍콩과 중국의 수치는 가끔 해석하기가 더 까다롭지만, 중국이 해외투자를 신중하게 시작해 왔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최근 중국 주식은 중국의 회사와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경쟁하려면, 중국이 세계 기술과 시장을 주도하며 경쟁하도록 세계경제에서 남보다 앞선 투자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현재 자원뿐만 아니라 시장과 기술 조달 확보를 위하여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2년 전 본인은 북경의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부(MOFTEC)와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영국에 등록된 중국회사가 35개에 이른다고 했다. 이 수치는 불과 2년이 지난 지금 100 개를 훨씬 넘는다. 이 수치에는 영국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1개의 중국은행 지점과 4개의 중국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영국의 위치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다. 이코노미스트紙는 얼마 전 한 기사에서, 최근의 수치는 영국 경제에 대한 괄목할만한 성공사례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주는 가장 최근의 章이라고 하였다. 영국은 현재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으며, 1998년에는 미국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다. 중국의 주어진 여건과 개발속도를 나타내는 중국 전체에 대한 투자보다 더 많은 투자를 영국은 계속 유치하고 있다. 15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의 약 1/4 이 영국으로 유입된다. 수치로 옮기자면 유럽으로 유입되는 미국 투자의 40% 이상, 일본 투자의 46%, 캐나다 투자의 50%, 호주 투자의 80%, 대만 투자의 80%를 영국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 투자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미국을 제외한 어떤 곳보다 영국 시장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연합 내에서 선도(先導)적이다. 오늘날 투자유치는 경제라는 케이크 위에 입히는 설탕이 아니라, 현대 경제라는 케이크를 굽는 본질적인 부분이다. 왜냐하면 투자유치는 문자 그대로 전 세계로부터 투자와 함께 최선의 영업과 최고의 기술을 들여오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영국의 수치는 국제성장과 나란히 하고 있으며, 굳이 말하자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2년 동안 영국은 주식거래에서 가장 급속한 성장을 맞이했는데, 믿을만한 수치에 의하면 영국은 2,500억 파운드, 미화로는 대략 4,000억 달러에 달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본인이 이 일을 맡고 있는 동안 두 배로 증가한 것이다. 지난 5년 동안에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많은 투자가 영국으로 유치되었다. 투자유치에 대한 우리의 오랜 역사를 고려할 때, 이러한 부분은 그 중요성의 정도에 대한 척도가 된다.

오늘날 다른 세계경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유치는 북미지역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다른 많은 부분들처럼 미국은 투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현재의 비율로 보아 영국으로 유입되는 투자의 절반 정도가 미국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캐나다의 투자도, 특히 통신과 같은 특정사업에 있어서 영국에게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북미와 유럽 지역은 여전히 역내투자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지역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온 대기업들이 진정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또 세계적 협력관계의 한 부분이 되어 가는 만큼, 이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투자의 눈길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른 지역에서 영국으로 유입된 투자의 2/3가 일본에서 유입된 것이다.

또한 인도로부터 유입되는 투자도 매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상당히 많은 인도의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인구가(이들 중 많은 사람이 현재 영국 국적을 갖고 있다) 영국에 존재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지금은 변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1997년 12월 이후 한국의 투자가 불가피하게 위축되어 왔다. 한국은행과 한국은행연합회의 수치를 의하면 1968년 이후 유럽연합에 대한 한국 투자의 48%가 영국에 집중되어 왔다.

현재 영국 경제는 근세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사례중 하나이며, 이러한 성공은 잘 짜여진 경쟁력에 뿌리를 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쟁력은 대처 정부 하의 1980년대 개혁 프로그램에 의해 극적으로 전환되었으며, 블레어 정부가 확대·강화시켜 왔다.

우리 경쟁력의 핵심은 우리가 유럽시장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며, 그것은 아주 역동적이다. 유럽시장의 규모는 종종 이 지역에서 과소평가 되고 있지만, 유럽시장의 인구는 약 4억이며 향후 10년 내에 1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는 이미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 보다 많으며 연간 성장률은 2.8% 이다. 여러분들 귀에 익숙한 성장률과 비교하면 이러한 성장률이 작은 규모로 들릴지 모르지만, 유럽연합 내에서 2.8%의 성장률은 연간 단위로 대만의 GDP 규모를 더한 것이다. 유럽시장은 실제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며, 영국 내의 한국 투자자들은 48시간 내에 유럽연합의 어느 곳 에라도 갈 수 있다. 제조업자들은 아시아의 또다른 투자자인 Hutchison Whanpoa社가 운영하는 세계의 대부분의 컨테이너항을 통해 자사 제품을 유통시킨다.

투자자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영국의 근로환경은 단지 영국 노동력의 기능, 기술 및 창의력뿐 아니라 영국 산업에 새로운 형태의 공감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Toyota, Nissan, Honda 등의 회사는 영국에서 노사분규로 인해 한 시간도 손실을 본적이 없다. 유럽대륙 국가들이 근로관행에 대해 형식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북미뿐만 아니라 아시아 투자자들도 작업 방법과 스타일의 적합성에 기인한 영국 노동시장의 근로환경과 유연성에 대해 꾸준히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주당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제한하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누구에게도 35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영국의 환경은 훨씬 더 유연한 상태로 유지될 것이다. 게다가, 영국은 납세에 대한 열성이 부족하여 정부 지출에 소비되는 GDP의 비율이 훨씬 낮으며, 영국의 조세체제는 미국과 아주 흡사하여 효율적이다. 가장 높은 개인 소득세율은 40%이며 평균 소득세율은 20%이다. 20% 이상을 납세하려면 미화 약 50,000 달러를 벌어야만 한다. 이것이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른 점이다. Ernst와 Young이 말하는 "조세 고통지수(tax misery index)"를 기준 해볼 때, 유럽 내에서 영국의 지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 따라서 영국의 조세체제는 개인수준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수준에서도 주요 유럽국가들 중 가장 유리하다. 처음에 본인이 언급했던 것처럼, 각 국가들은 거의 1일 기준으로 여러 나라를 벤치마킹(benchmarking) 하는 세계적 기업들과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경쟁해야만 한다.

흥미로운 것은 영국이 모든 주요산업들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고 민영화 해왔다는 것이며, 이러한 것

들이 한국에 특별한 반향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영국의 시장은 열려있다. 국가적 소유권을 근거로 한 차별이 없다.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는 모두 영국 회사이다. 최근 1980년까지 정부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규제되고 통제되었던 많은 분야들이 현재는 완전히 민영부문에 속해 있다. 예를 들어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완화의 효과는 지금 현재 뉴욕보다 더 많은 미국 은행을, 도쿄보다 더 많은 일본 은행을 런던에 확보하는 환경을 만들어 왔다.

1983년 전세계에서 최초로 완전히 민영화된 통신시장은 400여 개 이상의 사업자들이 사업승인을 받아 활동하고 있고 삼성과 같은 회사들이 차세대 디지털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며, 전세계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회의를 하는 곳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Motorola社는 Swindon에서 세계 표준 GSM을 개발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한 예가 많이 있다. 그러나 모든 주요 산업이 개방되고 진정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세계적 자본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절대 기본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환경에서 여러 나라들이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전제는 자국 내의 주요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런던은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적 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유일한 도시이다. 뉴욕에 있는 우리 동료들은 미국 시장의 동향에 집중하고 있지만, 런던은 국제적 비즈니스와 서비스가 운영되는 곳으로 점점 더 변모하고 있다. 상위 다국적기업 본부의 20% 이상이 영국에 있으며 유럽을 겨냥한 미국 기업 본부의 약 65%가 런던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Heathrow와 Gatwick 공항은 가장 붐비는 세계 5대 공항 중 두 곳이며 통신환경은 가장 저렴한 편이다. 런던 한 곳에만 10,000명 이상의 거주민을 가진 외국국적은 35개국을 넘는데, 이중 일부는 그 규모가 매우 크다. 중국인 사회는 200,000명 이상이며, 런던에 있는 미국인 사회는 버지니아주의 리치몬드 규모이고, 일본인 사회는 북미를 제외하고 런던이 가장 크다. 한국인이 많이 사는 사회도 있는데 단순한 투자자로서 뿐만 아니라 이웃으로도 환영한다.

금융서비스도 매우 중요하며 런던은 금융서비스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예를 들어 런던은 세계 여타 지역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유럽국가들과 교역한다. 세계 회합의 장소이며 금융자본에 대한 서비스센터로서의 런던의 위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 흥미롭게도 유럽의 나머지 국가들도 이러한 점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Deutsche Bank와 Dresner Bank는 모든 투자 금융의 국제기능을 런던으로 옮겨왔다.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 회장은 “의심의 여지없이 런던은 규모, 자질 있는 인력, 매력 있는 조세, 법률 및 문화적 환경의 이점 덕분에 선도적인 중심부로 남을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하느냐”라는 점을 기억하라. 우리는 Citibank를 영국의 은행으로 생각한다. Goldman Sachs社는 영국 국적으로 Financial Times紙에 광고하면서 영국의 은행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그들이 뉴욕에서 고용했던 만큼 많은 사람들을 현재 런던에서 고용하고 있다. 뉴욕에서 만큼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들 금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성공의 신호로 본다.

본인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의제”로서 지식주도의 경제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취지의 핵심은 해외로부터 최선의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 의제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요소는 해외로부터 최선의 아이디어를 누가 도입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영국 투자청은 높은 가치의 프로젝트에 집중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는 과학적 우수성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부문별 또는 기술본위의 개발이나 구축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지난주만 해도 본인은 유럽진출을 위한 또 다른 한국 기업인, 삼성의 데이터시스템 회사를 런던 서부지역에 개설했다.

우리 모두가 완전하게 개방되어 있는 세계 최고의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것만큼, 이를 가속시키고 있는 것은 인터넷 접속이다. 본인은 한국이 이 분야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스칸디나비아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스칸디나비아는 비올적인 면에서 볼 때 인터넷 채택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영국의 수치는 비즈니스와 가정용 인터넷 보급이라는 측면에서 미국과 거의 버금간다. 그리고 스웨덴과 핀란드(Nokia를 통한)가 영국에서 많은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북유럽의 경험에서 얻는 이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국은 인터넷 채택 및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인터넷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여타 주요 유럽 경제를 상당히 앞서고 있다. 이는 “e-commerce@its.best.uk”라는 프로그램의 출범뿐만 아니라 전자사절(使節)과 정보사회장관직을 설치한 총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집중해 온 것이다. “e-commerce@its.best.uk”는 영국을 2002년까지 전자상거래를 이끌어가기 위한 세계 최고의 장소로 만든다는 단순한 목표를 갖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서명 법제화, 본인이 언급했던 정보사회장관, 웹이 가능한 모든 학교(불과 지난주에 이 프로그램을 위해 1억 파운드가 추가로 확보되었다), 정보기술(IT)센터, 정부 서비스의 전자배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자환경은 우리가 촉진하려고 하는 것이며, 우리는 인터넷과 소프트웨어의 기본 언어가 영어라는 사실에서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다.

본인은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프로그램을 지원하려면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토니 블레어 총리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본인은 영국이 혁신과 창의력에서 앞서나가 현대적이면서도 진취적인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영국 기업이건 외국 기업이건 유럽으로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를 위한 이상적인 기초를 제공하여 앞을 내다보는 나라를 말입니다.”

나라를 세계적으로 발전시키려면 국가 지도자는 그에 따르는 노력을 이끌어야한다고 생각되며, 이 점은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투자의 이점에 대한 정치적 스펙트럼(spectrum)에서 논쟁이 없다는 점으로 영국은 특혜를 누려왔다. 완전한 정치적 스펙트럼은 영국 자체의 투자와 외국에서 유입된 투자를 나란히 지원한다. 영국 투자청은 일관된 행정체계 하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 또한 지식 의제에서, 그리고 지식 환경에서 ‘혁신’과 ‘창의’라는 단어가 핵심이 될 것이다.

정보기술이나 제약(製藥) 혁명의 역사에서 볼 때, 영국은 많은 부분을 제공해 왔다. 전기를 개발한 사람이 영국 사람이었으며, 월드와이드웹을 개발한 사람, 세계에서 최초로 컴퓨터를 만든 사람, 페니실린을 개발한 사람, 또 현재 인간 게놈(genome) 작업 프로그램을 이끈 사람도 영국 과학자였다. 우리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전세계로부터 나오는 아이디어, 기술, 재능 및 자본을 적극적으로 포용하

는 국가적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세계경제 한 곳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단독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여 경쟁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많이’ 끌어들이므로써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질 의 · 용 답

[질 문] 영국 정부가 외국 투자자들에게 세금 인센티브나 다른 특혜를 제공하는지 납득을 못했다. 그러나 귀하의 발표에서 몇 가지 모순되는 점을 발견했다. 우선,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요즘은 세계 많은 선진국들도 서울에 와서 자기 나라에 투자해달라고 이야기한다. 만약 영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모든 생산자본을 국제자본시장에서 끌어낸다면, 자본을 구하고 있지만 자본동원 능력이 느린 저개발국가는 어떻게 되겠는가? 본인은 여기에 모순이 있다고 본다. 다른 한 가지는, 본인이 런던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로부터 들은 바로는 그곳에 살아남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은 여기 저기서 비즈니스를 해오고 있지만 런던에서의 차별은 아주 교묘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답 변] 우선, 영국은 외국인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지 않고 아주 단순한 이유로 외국인 비즈니스에 대해 어떠한 세금 인센티브도 주지 않는다. 영국에는 외국인 비즈니스가 없다. 영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는 누구나 영국 회사이다. 소유권과 관련하여 법이나 관행에 있어 어떠한 차별도 없다. 하루만에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고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다.

우리가 여기서 또 다른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에는 외국인 소유권을 용인하는 것과 관련된 문화적인 문제가 있으며, 그것은 부분적으로 한국이 뛰어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방편이기도 했다. 한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우리는 그러한 짧은 시간 동안에 한국이 이루어 온 것과 여러분 스스로 이러한 것을 이루어왔다는 사실을 변함없이 상기하게 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뛰어난 재능과 힘든 노력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룩해 왔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국은 전쟁이후 사실상 아무 것도 남은 것이 없었으며, 금세기 가 끝나는 지금은 인구 중 절반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세계 상위 10대 경제국중 하나이다. 이는 아주 강력한 국가적 이름과 국가적인 회사를 일부 토대로 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거기에는 국가적 투사의 의미가 크다.

영국의 경험은 조금 달랐는데, 그 이유는 영국 경제가 더 연륜이 깊고 성숙했으며 항상 다른 경제국가와 전세계적으로 거래하면서 상호 의존해왔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국 자동차 산업의 쇠퇴와 영국에서의 자동차산업 성공이라는 두 개의 아주 다른 현상을 매우 예민하게 지켜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Nissan이 영국의 훌륭한 성공사례가 된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좀더 쉽다는 사실을 알았다. Sony와 같은 회사를 웨일즈의 회사로 받아들였고, Sony

社는 세계에서 웨일즈 언어교육에 가장 큰 투자자이다. 우리가 이것을 문화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차이가 있으며, 여러분들이 극복해야할 장애물로 본인은 이해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것을 한국 자신이, 자신의 상표와 처리방식으로 이루어 왔다. 그러나 한국이 훌륭한 수출국가이기 때문에 한 부분이 되고 싶어하는 세계환경 속에서는, 모두가 모든 곳에서 역할을 한다. 인터넷은 지리(地理)를 무시한다. 한국인이라는 여러분들의 강한 의식과 지난 50년간 여러분들이 이루어 온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와 같은 세계적 연계망의 한 부분으로 적응함에 따라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결코 쉽지 않다.

귀하가 제기한 혼란은 흥미로운 지적이다. 선진국들이 이러한 현상을 통해 개발도상국들과 자신과의 격차를 크게 벌이고 있다고 여겨지는가? 본인은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본인은 최근 몇몇 중국 대표가 참석한 회의에서 연설을 하였는데, 그 중국 대표들이 세계화 현상으로 인해 몹시 설레는 것을 보고 강한 인상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계화 현상을, 이러한 기준을 설정한 다른 사람들에게 종속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실제로 세계 경제에 참여하여 세계 기준에 따라 경쟁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인은 투자가 양쪽이 모두 망하는 게임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안이라고 전적으로 생각한다. 가용 세계자본의 양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는 정말 요즘 유동성이 풍부한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투자를 통하여 양측은 각자의 방향에서 이득을 본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대기업들이 한국과 세계 전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기업들의 영국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들은 엄청난 수치로 세계 전역에서 나누어져 우리에게 되돌아오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술의 이전과 새로운 시장으로의 접근도 생겨난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이 정해 놓은 의제를 따르기보다는 이와 같은 세계환경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점은 영국 경제에 손실이 되지 않는다.

일부 기업들은 생존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유감이다. 런던은 아주 경쟁적인 환경이고 현재 런던에서 드는 비용은 꽤 높으며, 불과 5년 전에 비해서는 더 높다. 세계는 과열지역으로 가는 과정에 있으며, 실리콘밸리는 짝 찼고 매우 비싸다. 사람들 누구나 가고자 하는 곳을 찾기는 불가능하다. 이용할 수 있는 땅이 많이 있는 “위스콘신으로 옮기자”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집단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람들은 크게 성공한 과열지역에서 더욱더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영국에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다민족, 다문화적 환경에 대한 포용이며 차별이 없다는 점 때문이라는 것이 본인의 경험이다.

[질문] 본인의 질문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담당하는 기관에 관한 것이다. 아시다시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내에는 한국투자지원센터(KISC)가 있다. 한국투자지원센터는 정부기관이 아니지만, 영국 투자청은 귀하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정부기관이다. 귀하의 경험에 비

추어볼 때, 특히 인센티브 및 윈스톱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떤 기관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담당하는데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보는가?

한국내의 특별한 기관 중 하나이며, 김완순 박사께서 현재 책임을 맡고 있는 외국인투자 ombudsman 사무소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 이 기관은 새로운 잠재적 투자자들이 아니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창설한 것이다. 한국은 기존 투자자들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확대시킬 계획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담당하는 한국 기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답 변) 무엇이 한국을 위해 최선의 구조인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전세계에는 다양한 구조들이 있다. 그러나 본인은 사실상 이러한 기구가 정부기관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법률적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훌륭한 변호사가 있고, 유능한 투자금융가, 벤처자본가, 회계법인 등 모두가 민간부문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정부에 의탁하는 특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주 중요한 것으로서, 영국 투자청은 영국의 정책 의제에 관한 핵심기구이다. 영국의 많은 주요 정책과제들은 외국인 투자에 의해 방향이 정해지는 것들이 아니라, 세율이나, 스톡옵션(stock option), 기술숙련도 같은 것들에서 영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외국인 투자자들을 통해 확실히 알게 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영국 투자청과 투자자들과의 관계는 주변국과 경쟁이 되는 영국의 투자환경에 관하여 각료들이 아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 가령 우리가 세제를 개편할 경우, 투자자들은 그 차이점을 매우 빨리 파악할 것이다. 즉, 우리가 일을 잘못하고 있다면 투자자들은 재빨리 이에 주목하고 우리에게 알려서 정책 의제에 대한 정보를 준다. 정책 의제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정부기관으로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질 문) 영국은 과거에 노동파업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 정부는 그 파업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답 변) 지식경제에 있어서 국가간의 경쟁은 기술숙련도, 훈련, 재능, 노동력의 적응력을 근간으로 할 것이다. 인간의 재능은 각 사회들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Peter Drucker는 "미래에는 가난한 사회가 없다. 단지 무지한 사회가 있을 뿐이다." 라고 기술한 바 있다. 본인은 각 개인을 위한 국가경쟁 의제에 대한 교육, 기술숙련도 및 훈련의 구심점이 아주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영국의 경우, 70년대 말쯤 상황이 아주 나빠서 노동파업과 관련하여 무엇인가를 해야한다는 일종의 국가적 합의가 있었다. 확실하게 나타난 중요한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규 체계가 개정되어 노동조합 세력이 합법적으로 공식화되었다. 둘째, 영국에 새로운 경영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경영진들은 산업의 양측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영국 산업에는 항상 양측이 있었지만, 결코 더 이상 그와 같은 방법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영국에

는 현재 노동조합평의회(Trade Union Congress)와 영국산업동맹(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이 있는데, 우리는 이들과 진정한 의미에서 협력관계를 맺고 여러 가지 범주의 문제들에 대해 공동으로 작업하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중의 하나는 영국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영향인데, 투자자들의 관행들은 영국 산업의 일부 낡은 계급문제를 무너뜨렸다. 본인은 영국에 투자한 아시아 투자자들을 만날 때 충격을 받는다. 왜냐하면 종업원을 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대신에 그들은 '동료(member)'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것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아주 크게 다른 점이다. 예를 들어, Honda社에 있는 '동료'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본에 있는 Honda에는 노동조합이 있지만 영국에 있는 Honda에는 없는 것이다. 영국 전자산업의 대부분이 非조합원인데, 이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약관보다는 고용주와의 개별계약을 택했기 때문이다.

현재 산업계에는 진정한 의미의 공감대가 있으며, 이러한 공감대는 아주 강력한 국가적 이득이다. 작년에 영국은 1893년 이래 최저수준의 노사분쟁을 기록했다. 영국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그들과 영국 근로자들과의 관계가 건설적이며 이러한 파트너십이 진실하다고 본인에게 말한다. 또한, 초기 일본 투자자들에 의해 도입된 단일노조협약도 중요하였다. 1977년 Plymouth에 있는 Toshiba社는 최초로 단일노조협약을 도입하여, 한 공장에 10개 혹은 12개가 아니라 1개의 노동조합을 두게 되었다. 그리하여 분쟁의 역사는 무너져 내렸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여기서 기본적인 것은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새로운 공감대와 파트너십에 대한 약속이었다.

(질 문) 영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과 관련된 질문이다. 귀하는 영국에 있는 한국 기업의 경영이나 노사관계가 어떤 식으로든 독특하다는 것을 들은 바가 있는가?

(답 변) 한국 기업들이 독특한지는 말하기 어렵다. 본인이 방문한 기업들은 본인이 방금 설명했던 그런 종류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었다. 본인이 생각한 흥미로운 점은 영국의 경영자들이 동화되고 있는 속도이다. 여러분들이 북아일랜드에 있는 대우 비디오 공장에 가본다면, 그 공장은 본질적으로 북아일랜드의 회사일 것이다. 잉글랜드 남부해안에 위치한 Worthing에는 대우의 자동차사업을 위한 연구개발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전세계에서 온 기술자들이 있다. 삼성공장은 영국 경영자와 한국 경영자들이 잘 통합되어 있다. 영국 회사들이 매우 적극적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함께 깊이 빠져드는 속도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짚어낼 것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Attracting FDI in the Knowledge Era*

Andrew Fraser

It is a great privilege to be with you and also a great privilege to be seeing, as always, the speed and scale of the recovery here in Korea and to hear what you are doing to adjust to the circumstances that came about at the end of 1997 across the whole of Asia.

What is very striking to me are the similarities between our own situation and that in Korea. Interestingly, Invest UK was formed the year after the IMF came in to look at the British economy in the 1970s and the investment agenda we set then, particularly the focus on deregulation of markets and labour markets, has really underpinned all the work we have done since.

Perhaps I can just say something about the organisation itself. Invest UK is the single government agency which promotes the whole of the UK as an inward investment location. Our aim is simple: to attract, retain, and add value to UK investment. Many of our greatest investors have been in Britain so long that the British community does not really know that they are foreign owned. Siemens has done business in Britain since 1840, the first Ford built outside North America was built in Dagenham, the first General Motors car, Vauxhall, was built in Luton in the early 1920s. So, we have a society in which the existing base of inward investment has been well embedded in the UK economy for well over a century, and the retention and adding value to that investment, in a fiercely competitive globalised environment, is something that is a very high national priority.

A couple of organisational points, we are co-owned by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and the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FCO) and I report to Ministers there through a new organisation, British Trade International (BTI). Within that organisation there are twin pillars; one is Trade Partners UK, which focuses on helping British companies compete outside the UK; the other is Invest UK, which works to attract, retain and add value to investors coming into Britain. I think that is the right structure and BTI is led by its own board, which is a public/private partnership with a number of senior as well as small businessmen sitting alongside some government officials and Ministers. So, even for us, it is a new development and a unique experiment in terms of building a public/private partnership to support commercial activities worldwide. We, in turn, are heavily dependent

* A presentation at IGE Distinguished Lecture Forum September 14, 2000

on our teams to operate in international markets and with our UK partners.

We now offer something unusual, in addition to the national UK organisation, Invest UK, every single part of the country now has its own development agency. We regard that as extremely important. I was on a platform in about 1990 with the Chairman of Nestle. He said "my company is completely global, 99% of our business is outside of our home market [Switzerland]. But in my company, the more we become global, the more we constantly remember that every sale is local."

I think that is a good phrase. Investment decisions are made on a very local basis. Our development agencies can support investors with planning issues, with relationship with suppliers, relationships with customers, infrastructure issues, training and development issues so that our development agencies can work with companies to anticipate their needs and ensure that the skills base is there. I think at the heart of our organisational strength is the best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and devolved administrations, certainly of any European country. In the US there is no federal equivalent of our organisation, they only operate at state level.

We intend to have all our services online within the next 12 months, so that we will be able to communicate online with all our clients and with our stakeholders in the development agencies. So, it will genuinely be a web-enabled investment service that will operate seamlessly across the world. We have a regional office, led by John Rutherford, working with all our Asian teams outside Japan and they in turn develop their own website (www.investukasia.org) and that again manages a "one-stop shop" for investors at the Asian level.

I want to talk about some of the national implications brought about by globalisation. There is a fundamental point that I want to address directly, which has great relevance to Korea. Attracting capital, attracting technology and attracting talent from around the world is in my view the mark of a successful society. All the evidence we see in a world economy is that the attempt to go it alone is rarely successful and is not a measure of national success. Perhaps our experience as a very open international economy (historically 40% of our GDP has been trade related) has helped us embrace foreign investment and regard it as a measure of British success and not as a measure of British failure. This next quote from Robert Reich, Clinton's labour secretary, makes this point more formally:

"As corporations of all nations are transformed into global webs, the important question - from the standpoint of national wealth - is *not* which nation's citizens own what, but which nation's citizens learn how to do what, so they are capable

of adding more value to the world economy and therefore increasing their own potential worth.”

I think we no longer live in an age of change. In the way business is being done through corporations of all nations transforming into global webs, we live in a revolutionary age. The relationship with businesses and their consumers, businesses and government, and the nature of the business itself and the ownership of that business is radically transform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anies and their historic national base. I genuinely believe we are now close to the end of corporate nationality as we used to know it. If we had been meeting here ten years ago, we would have been surprised to predict that the largest single shareholder in Nissan would be the French government. We would have been surprised to hear that Chrysler, the symbol of American economic nationalism and the Jeep of the US military, would be in the same company as that symbol of German engineering, Mercedes-Benz and that great Japanese corporation, Mitsubishi. That is all one company, who owns it I do not know and it does not matter. What does matter, is where they decide to locate their functions and which nations are going to be able to add value to that business. We are very proud, for example, that the Daimler-Chrysler-Mitsubishi Group has to come to Britain for its value-added development and all their Formula One work, because that is where the state-of-the-art worldwide of automotive engineering lies. We think that is a measure of success and take great pride in the Daimler-Chrysler-Mclaren vehicle being a British product. It is who adds value, not who owns what.

These global corporations and the webs they are creating around the world are accelerating quite remarkably. If anything we are seeing a continuing acceleration of the globalisation phenomenon along with FDI growing at some 16% per annum. By contrast, world trade is growing at a little over 5% and world GDP just over 2%. As the UN constantly reports now, the key driver in global commerce is investment. One third of all world trade is inter-company, fewer than 40,000 companies now account for two-thirds of all world trade. In my judgment, the ability of a society to respond to this phenomenon and to be truly open in embracing the scale of this change will be the determinant of success in the years ahead. Looking at those numbers a different way, the global stock of overseas direct investment over the last 20 years has multiplied tenfold. Again, all the indications are that this is accelerating. The stock figure is now a sharply rising curve on the chart, and rather than plateauing, it is accelerating. I think the successful societies will be the ones that attract a disproportionate share of that stock and in a phrase that I heard the other day “many of us will always be better than any of us.”

Much of the driver in this growth is merger and acquisitions and it has been quite interesting to see the flows of British investment into Korea, much of it on a joint venture basis, where we see companies like Tesco working with Samsung and BT working with LG Telecom. In this global environment we are going to see more such partnerships as people with expertise geographically and technically link together to face the global challenge. It will be much harder for companies, like countries, to go it alone and the merger and acquisition growth will continue. In Britain, we are quite relaxed about this. Right now the ownership of the London stock exchange (LSE) is under dispute, but there is no public outcry that perhaps there may be a linkage with the German stock exchange. Indeed, the latest bidder for the LSE is a Swedish company and we are completely relaxed about that. We are completely relaxed about the fact that Sweden's largest company, Ericsson, which is 40% of the stock market of Sweden, is headquartered in London because the key international functions have moved. That is a measure of how companies are disengaging from their countries of historic origin.

So, what is happening in terms of countries? The United States is the world leader in both inward and outward investment and I believe it is the mark of the health of an economy if these are in reasonable balance. The UK is second to the US, and way ahead of Japan on both attraction of inward and promotion of outward investment. Our government actively supports and endorses companies which are looking for outward investment opportunities. We are well ahead of Germany and France, Germany having quite an imbalance between inward and outward investment. Interestingly, I think the Japanese figure tells a huge story. There is very little inward investment into Japan, whose corporations are, in many ways, going it alone in terms of the intellectual capital base in Japan. When one thinks of the relative economic performance of Japan over the last decade versus the United States, there is perhaps an important message there.

The Hong Kong and China figure are often more difficult to decipher, but we have been very interested to see the beginnings of serious outward investment from China. The Chinese President made a remark recently that if our companies and enterprises are going to compete globally, then we must become early investors in the world economy so we do compete with the leading technologies and leading markets in the world. So, the Chinese government is now actively promoting outward investment, not only to secure resources, but also to secure markets and technology access. Two years ago I was with MOFTEC in Beijing and they told there were 35 registered enterprises in the UK from China. The figure is now well over a hundred in only a two-year period. That includes a full branch of the Bank of China and 4 Chinese companies listed on our stock exchange.

Let me just briefly summarise the UK position. *The Economist* recently wrote a piece saying the latest numbers are the most recent chapter in what has been a remarkable success story for the British economy. Britain is currently a magnet for foreign investment and in 1998 attracted more than any country in the world, except for the US. We continue to attract more investment than the whole of China, which given the stage and speed of China's development says something. Around a quarter of foreign investment in the 15-member European Union comes to the UK. To put some figures on that; more than 40% of US investment, 46% and rising of Japanese investment, 50% of Canadian investment, 80% of Australian investment, 80% of Taiwanese investment into the EU, is in Britain. And German investors have put more money into Britain in the last decade than any market, other than the US. So we lead also within the EU. Inward investment is not the icing on the cake of an economy these days, it is an essential part of baking the cake of a modern economy, because inward investment is bringing with it best practice and best technology from literally around the world.

Our figures are, in a sense, paralleling the international growth, but if anything, we are seeing acceleration. In the last two years we have had the fastest rise of growth in the stock, which is the most reliable number, and we have a stock of over 250 billion UK pounds, roughly US\$400 billion. It has more than doubled in the time I have been in this job. In the last five years we have seen more investment into the UK than in the rest of history. And given our long history of attracting investment, that is a measure of the scale of its importance.

Like so much else in the world economy today, it is being led by North America. America does matter when it comes to investment, as in so many other things, and we find that roughly, at current rates, about half our business comes from North America. Canadian investment, particularly in niche businesses like telecommunications, is tremendously important to us too. But the North American figure and the European figures are still the major sources of inward investment as the consolidations happen. However, we do not underestimate the potential from this region, because I think the great corporations from this region, as they become truly global operations and become part of global partnerships, will also be looking to invest out of the region. About two-thirds of investment into the UK from the region comes from Japan.

We are also seeing now quite rapid growth from India. The presence of so many Indian IT and software people in Britain, many now with British nationalities, is of key importance. There has inevitably been a slowdown in Korean investment since December 1997, though interestingly we are seeing signs that that is now beginning to change. In terms of South

Korean investment, based on the Bank of Korea and the Korean Federation of Banks' figures, 48% of Korean investment in the EU since 1968 has focused on the UK.

The British economy now is one of the great success stories of the modern world and it is rooted in a competitive position that is well articulated and which was dramatically transformed by the reform programmes of the 1980s under the Thatcher governments, which if anything, the Blair government has extended and consolidated.

Absolutely central to our position is our presence in the European market, which is extraordinarily dynamic. The scale of the European market is sometimes underestimated in this region, but it is a population of around 400 million with the expectation of growing by another 100 million within the next ten years. The GDP is already larger than the US and Japan combined, and annual growth of 2.8%. Compared to the growth rates you are used to here that may sound small, but 2.8% growth in the EU adds a GDP the size of Taiwan on an annual basis. This is a European market that functions as a real market, Korean investors in Britain can reach any part of the EU within 48 hours. The manufacturers distribute their products through the most container ports in the world, run by another Asian investor, Hutchison Whanpoa Limited.

In a brief summary of the issues that we believe are critical to investors, our labour environment is constantly talked about, not just the skills, technology and creativity of the British workforce, but the fact that there is a new form of consensus in British industry. Toyota, Nissan, Honda have never lost an hour to a labour dispute in the UK. Asian as well as North American investors, because of the compatibility of working methods and styles, constantly talk about the labour environment and the flexibility of the UK labour market, at a time when continental European countries are moving towards formal restrictions on working practices. For example, the French are trying to restrict the working week to 35 hours and nobody will be allowed to work more than 35 hours. Our environment is going to remain much more flexible. In addition, we lack enthusiasm for paying taxes and we have a much lower percentage of GDP spent on government expenditure and our tax regime is effectively very similar to that of the US. A top rate of personal tax at 40%, a standard rate at 20% and one has to be earning around US\$50,000 before it moves above 20%. This is radically different to other countries. On what Ernst and Young calls the "tax misery index" in Europe, we are very proud to constantly come bottom. So, the tax regime, at the corporate level as well as the personal level, is the most favourable across all the major European countries. As I said at the start, countries are going to have to compete on these factors with global corporations that are benchmarking countries on an almost daily basis.

What has been interesting has been the deregulation and privatisation of all our key industries, which may have a special resonance in Korea. Our markets are open. There is no distinction based on national ownership; anyone doing business in Britain is a British company. Many areas that were effectively regulated and controlled by government as recently as 1980, are now completely in the private sector. For example, the impact of the financial services deregulation has created an environment where London now has more American banks than New York and more Japanese banks than Tokyo. It is an environment where the whole world can do business.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the first market to be genuinely privatized worldwide in 1983, where over 400 licensed operators work and companies like Samsung are doing their next generation of digital development, is where the whole world is meeting to develop the new technologies. For example, Motorola will be developing its GSM standards for the world in Swindon. There are many such examples, but it is absolutely fundamental that all the key industries are open and available to global capital in order to create a genuinely globally competitive marketplace. So, the essential premise that enables countries to compete in this global environment is to ensure deregulation and privatisation of key industries at home.

London is emerging as the single truly global city. Our friends in New York concentrate understandably on the excitements of the US market, but London is increasingly where international business and services are managed. It is striking that over 20% of the top multinational HQs are in London and around 65% of American management HQs for Europe are in London. Heathrow and Gatwick are two of the five busiest airports in the world and our telephone environment is among the cheapest. We now have over 35 nationalities in London alone of over 10,000 natives and some of them are very large. The Chinese community is over 200,000, the American community in London is the size of Richmond, Virginia, and the Japanese community is the largest outside North America. The presence of a substantial Korean community is also very welcome as neighbours, not just investors.

Financial services are very critical too and London's position is key to financial services internationally. It is striking, for example, that London trades more Euros than the rest of the world put together. The London position as the global meeting point and service centre for financial capital is very critical to us. Interestingly, the rest of Europe has accepted that, for example, the Deutsche Bank and the Dresdner Bank have moved all their investment banking global functions to London. The head of the Frankfurt stock exchange said, "London will no doubt remain the leading center, thanks to its advantages of size, qualified people, and the attractive tax, legal and cultural environment."

Remember, it is not, "who owns what," it is, "who does what." We think of Citibank as British, Goldman Sachs runs advertisements in the Financial Times under the Union Jack talking of a great British bank and now have as many people in London as they do in New York. We see that as a sign of success.

The "New Agenda" is focused, as I know the Korean economy is, on building a knowledge driven economy. Central to that is bringing in the best ideas from abroad. In the knowledge agenda we believe the key determinant will be who attracts the best ideas from abroad. Therefore, our organisation is focusing its attention on high-value projects, including those that support strong sectoral or technology-based development or build on centres of scientific excellence. Only last week, I opened yet another Korean company in West London, Samsung's data systems company for Europe.

As we all compete to find the best ideas in a world that is truly open, what is accelerating this for all of us is access to the Internet. I understand Korea is closer than anyone in this region to the Scandinavians, who, in percentage terms, have set the pace on Internet adoption. But the UK figure is now closely paralleling the US in terms of business and residential penetration of the Internet and the fact that the Swedes and the Finns (through Nokia) are doing so much of their development work now in the UK has meant that we are benefiting from that Nordic experience.

However, the UK is considerably ahead of the other major European economies in terms of adoption of the Internet and its integration in business. This has become a very single-minded focus of the Prime Minister, who has established an e-envoy and an information society minister, as well as launching a programme branded "e-commerce@its.best.uk." That has the simple aim of making Britain the best place in the world to conduct e-commerce by 2002. A number of frameworks for that include: legislations for signatures; the minister I mentioned; web-enabling all our schools (only last week a further billion pounds was committed to that programme); IT centres; and the e-delivery of government services. The e-environment is something which we intend to promote and we benefit enormously from the fact that the essential language of the Internet and of software is English.

I think it is very critical to have a national consensus if you are going to support a long-term investment programme. Recently Tony Blair said:

"I want Britain to be a modern and enterprising nation, at the forefront of innovation and creativity. A forward looking country that provides the ideal base for business - whether British or from abroad - to expand and develop into the rest of Europe."

I think national leaders have to lead the effort if we are going to promote our countries globally, and that applies to everybody. We have been privileged in Britain that there is no argument in the political spectrum about the benefits of investment. The entire political spectrum supports inward investment alongside indigenous investment. Our organisation has continued to manage its programmes under successive administrations. Also, in the knowledge agenda and in the knowledge environment, the words 'innovation' and 'creativity' are going to be key.

When we look at the history of the IT revolution or the pharmaceutical revolution, Britain has had an enormous amount to offer: It was someone in Britain who developed electricity; a British scientist who developed the World Wide Web; who built the world's first computer; who developed penicillin; and who led the programme that is now becoming the human genome. Our experience tells us that there has to be a national commitment that actively embraces ideas, technology, talent and capital from all around the world.

I think as we all compete in one global economy, it will be impossible for any nation alone to have the human and the physical resources to compete successfully. Our experience is that by attracting the 'many', we can beat the 'any'.

Thank you for your time and attention.

Question & Answer

Q I missed whether the UK government provides tax incentives and other privileges to foreign investors or not. However, I see a few contradictions in Mr. Fraser's presentation. Firstly, not only developing countries but nowadays many developed world countries come to Seoul to tell us please invest in our country. So, what happens to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that are capital seeking but slow in mobilising resources, if already developed countries like the UK draw all the productive capital out of the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I see a contradiction there.

Another point is that I hear from Koreans residing in London that it is very hard to survive there. In other words, they have been doing business here and there, but in London the discrimination is very subtle. How do you explain that?

A Firstly, we do not give any tax incentives to foreign business for a very simple reason we do not have any foreign business. There is no foreign business in Britain. Anyone

doing business in Britain is a British company. There is no discrimination in law or in practice based on ownership. You can start a business within a day and there is no need to get permission.

I think we are skirting around another issue here. In Korea, you do have a cultural problem embracing foreign ownership and it is partly a measure of your extraordinary success. Those of us who regularly visit this country are constantly reminded of what you have achieved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and you have done it by yourselves. You have done it through your own extraordinary talent and hard work. As you know the country had virtually nothing after the war and is now, at the end of the century, one of the world's top ten economies with half of the population on the Internet. This has been built on the basis of some very strong national names and national companies and there is a great sense of national champions.

Our experience was a little different because our economy was older, more mature and had always been interdependent with other economies and with trade worldwide. We were very keen to see with the decline of the British motor industry, the success of the motor industry in Britain, two very different phenomena. So, we found it a little easier to adopt the sense of Nissan being a great British success story. A company like Sony we embrace as Welsh, and the biggest investor in Welsh language education in the world is Sony. There is a difference in how we look at this culturally and I understand the hurdle you must get over. You have achieved this on your own, with your own brand names, your own way of doing things. However, in the global environment, which you want to be part of because you are a great exporting nation, everyone plays everywhere. The Internet knows no geography. I understand that it will take some change as you adapt from your strong sense of what is Korean and from all that you have achieved in the last 50 years, to being truly part of these global webs. And that transition is never easy.

The confusion point you raised is interesting. Are we looking at developed nations widening the gap between themselves and the developing world through this phenomenon? I hope not and I expect not. I spoke recently at a conference where some Chinese delegates were present and I was struck by how excited they are by the globalisation phenomenon, because they see this as a way of really participating in the world economy and competing to world standards rather than being dependent on other people setting those standards. I think genuinely that investment becomes a win-win proposition; it is not a zero sum game. There is no fixed finite amount of global capital available. Indeed, the world seems to be awash with liquidity these

days. Actually, both sides benefit from investment in both directions and we certainly believe it is valuable to see our great companies doing business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It is far from a loss to the British economy, not only do we see a divided return from around the world of extraordinary figures with benefit to British shareholders in those corporations, but we also see the transfer of new technology and the access to new markets, which I think allows developing nations to play in this global environment rather than have the developed nations set the agenda.

I am sorry to hear that some companies are finding it hard to survive. London is a very competitive environment and the costs in London now are quite high, higher even than five years ago. The world is beating a path to hotspots, Silicon Valley is full, it is very expensive, it is impossible to find people and everyone wants to go there. No one is saying, "let's move to Wisconsin," where there are acres of available land. We are seeing a cluster phenomenon, where people are competing more in the big successful hotspots. However, my experience has been that one of the reasons people enjoy working in Britain is this embrace of a multi-ethnic, multi-cultural environment in which there is no discrimination.

Q My question relates to the organisation dealing with FDI. As you may know we have KISC (Korean Investment Service Centre) as part of KOTRA. KISC is not part of the Korean government but Invest UK is part of the British government, as you explained before. Therefore, based on your experience, which will be the most efficient organisation in dealing with FDI, especially concerning the incentives and one-stop services?

I would like to mention one of our particular organisations in Korea, the Ombudsman's Office that Dr. Kim is now leading. That is the cre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to handle the existing investors, not for the new potential investors. In giving assistance to existing investors, we are going to expand investment in Korea. So, could you give us your opinion on the organisation in Korea of dealing with FDI?

A It is not for me to decide what is the best structure for Korea and there are a variety of structures worldwide. I actually think you have to be part of government, because there are brilliant lawyers in Korea who can help with legal issues, there are brilliant investment bankers, venture capitalists, accountancy firms, etc., who all play their part in the private sector, but there are certain issues on which companies look to government. Very importantly, we have become a key instrument of the British policy

agenda. A number of key policy issues in Britain are not directed by foreign investment, but are certainly informed by foreign investors, such as whether we are competitive on tax rates, stock options and skills, for example. So, the relationship we have with investors allows our ministers to be very quickly informed as to what the policy environment is in Britain, in competition with our neighbours. Investors are very quick to see the differences if we make tax changes, for example. If we are doing something wrong, inward investors are very quick to notice, and are very quick to tell us and inform the policy agenda. I think for that reason alone, informing the policy agenda, being part of government is key.

There are also some issues which only government can manage: the long-term skills agenda; physical infrastructure; the regulation of industries; and in our case, the enormity of dealing with Brussels. We are part of this European market and Korean and other investors look to us to help steer them through the latest anti-dumping regulations, the latest working time practices, etc. Those are issues that the government deals with. I am not saying that there is not a role for the private sector but government has to play a role, both nationally and regionally. I think our structure is right so that our team will work in Korea within our Embassy team, which in turn will have a relationship with our politicians, educationalists, cultural practices, etc. So I think government pulls it all together, but if you can maintain a private sector ethos as a business service organisation within government, that makes a difference. If government is responsive then this is likely to be place to do business, but I am not going to advise you on how to do it.

Q The UK is known for its very vicious labour strikes in the past. How did the UK government deal with those strikes?

A In the knowledge economy, the competition among nations will be rooted in the skills, the training, the talent, and the adaptability of the workforce. It is human talent that will be the difference between societies. Peter Drucker wrote, "In the future, there will be no poor societies, only ignorant societies." I think the centrality of education and skills and training to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agenda for everyone will be very critical.

In Britain, our situation got so bad that there was a kind of national agreement that we had to do something about it towards the end of the 70s. Certain key things happened: firstly, the regulatory framework was amended and Trade Union powers

were formalised in law; secondly, we started to see new generation of management in Britain, management that did not talk about two sides of industry. In Britain we always had two sides of industry, but we never talk that way any more. We now have a genuine sense of partnership with the TUC (Trade Union Congress) and the CBI (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working together on a range of issues. One of the reasons for that is the impact of inward investors, whose practices broke down some of the old hierarchy problems of British industry. I am very struck when I meet some of our Asian investors in Britain, because none of them have any employees, they use the word 'members' instead. It may sound very subtle, but it is a powerfully different point. For example, the 'members' at Honda have voted not to have a union. Honda in Japan has a union but it does not in the UK. The bulk of our electronics industry is non-union because the workforce has voted to have an individual contract with the employer rather than a union contract.

There is now a genuine sense of consensus in industry and that is a very powerful national advantage. Last year we had the lowest level of labour disputes since records began in 1893. Investors tell me that their relationship with the UK workforce is constructive and that the partnership is a reality. Single union agreements were also key, introduced by the early Japanese investors. Toshiba in 1977 in Plymouth introduced the first single union agreement, so that a factory would have one union not ten or twelve. Therefore, a history of demarcation disputes was broken down. So, a range of things happened, but fundamental to it was a commitment to a new consensus and a new partnership in business.

Q This question is regarding some of the Korean firms in the UK. Have you heard anything about any Korean company in the UK being unique in its management or labour relations in any way?

A It is hard to say whether they are unique. The ones I have visited have built on the kind of partnership I have just described. What I think has been very interesting is the speed with which UK managers have been assimilated. If you go to Daewoo's video plant in Northern Ireland, it is essentially a Northern Irish operation. On the south coast of England in Worthing is Daewoo's R&D centre for their automotive business, where there are engineers from all over the world. The Samsung operations are very well integrated with UK managers alongside Korean managers. I do not think there is anything I would particularly single out, except that the speed with which

the companies have become imbedded as British companies has been very positive.

Kim Wan Soon:

Thank you very much Mr. Fraser, I hope we can emulate Britain's experience in attracting FDI.

Faint, illegible text or markings located in the upper middle section of the page.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 후원회원의 종류 : 법인회원, 개인회원

- 법인회원에 대한 서비스
연구원 주최 행사에 우선 초청
연구원 주최 행사에 5인까지 무료 참가 가능
연구원이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 무료 제공
법인 회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개인회원에 대한 서비스
연구원 주최 행사에 초청
행사 참가비 할인
연구원이 발간하는 일부 간행물 무료 제공

- 후원회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공제 가능

- 회원 가입 문의
551-3334~7(전화) 551-3339(팩스)
E-mail : igenet@igenet.com
<http://www.igenet.com>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호

전화 : 551-3334/7, FAX : 551-3339

E-mail : igenet@igenet.com

(Website) <http://www.igenet.com>